

제 69 호

사순절 제 4 주일

1974. 3. 24

숲정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함 승 천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강 료】

교회는 죄인의 것

범 석 규 신부



오늘 주일성경 탕자의 비유를 보면 하느님은 한없이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모습을 올바르게 표현하며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회당의 복음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신자들은 이런말을 합니다. “저런 사람과 같이 성당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창피하다” 아마 이런 신자가 말하는 대상자는 사회적으로 별로 평판이 좋지않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처음으로 교회를 찾은 사람 가운데 어떤분은 “저는 아직 신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유인 즉 사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범죄할 기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서서히 연구 한 다음 노년기에 들어서 영세 입교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신자나, 구도자가 교회를 바르게 보지 못함에서 나온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으며 인류구원을 위해서 수난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는가? 죄인들인 인류를 그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뜻을 전하도록 교회들 세우신만큼 교회는 의인들을 위한 교회라 아니라 죄에 자주 떨어지는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 하기 위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삼년간의 공생활동안 죄인들과 약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바리새인들로 부터 비난을 받으시면서도 난류배들과 어울려 잡수시고 가시었던 사실이라든가, (루가15, 1-2) 마리아 막달레나를 구하시고 자케오의 집을 찾으시고 세리를 부르신 사실들은 당신 말씀하신 “인자(人子)는 세상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왔다”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자에게 필요하다고 하신 말을 잘 뒷바침해 주시고 계십니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는 우리를 그 죄악의 생활에서 구원 해 주는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위치에서 가장 인자하신 아버지 하느님을 생각하며 아버지의 집에 우리마음을 두고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가 아버지께 용서와 환영을 받기 위하여 회를 찾읍시다. 아멘.

<전동 성당 주임 신부>

＊이주일의 미사＊

(1) 개회식

□**입당송** 예루살렘아, 즐거워 하라. 그를 사랑하는 자 모두들 모여라. 슬픔에 잠겼던 너희 즐거움에 넘치며, 뛰놀며 그 위로의 젖을 흠뻑 마셔라.

(2) 말씀의 전례

□**제 1독서** (요수 5:9a, 10-12: 경향잡지 3월호 P53) 하느님의 백성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해방절을 지냈다

□**증계송**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보고 맛들여라. 우러러 주님을 보라, 기꺼우리라. 너희 얼굴 부끄러움이 있을리 없으리라. 보라 가엾은 이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근심 걱정을 씻어 주셨도다.

□**제 2독서** ◎ (고린토후 5:17-21, 성서 P. 411)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 시키셨다.

□**복을 전 노래**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리라.

□**복 음** (루가 15: 1-3, 11-32, 성서 P. 171) 네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 신자들의 기도

1. 잃었던 아들(湯子)의 회심(回心)을 기뻐하시는 주여, 이 사순절동안 당신과 멀어졌던 형제들이 아버지의 집을 찾아오도록 이끌어 주소서. ◎ 주여...

2. 노송동 성당의 건축 기공식을 마쳤음을 감사하나다. 주여, 하루빨리 당신 성전이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협조 정신을 일깨워 주소서. ◎

3. 주여, 지금 우리 모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당신의 가난을 본받고, 더욱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

+ 주여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시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 사랑을 알게 하소서. 우리주...◎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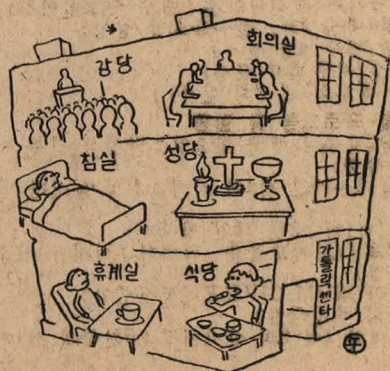
(3) 성찬의 전례

봉헌
성찬식

□**영성체송** 너 예루살렘은, 그 짜임새 멋지게 이룩된 도성, 지파들이, 주님의 지파들이 저기 올라 가도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러 올라가도다.

(4) 폐회식

＊ 숲정이 산책 ＊



이동자를 환영합니다. 가톨릭센터는 언제든지

□가톨릭 센터 소개□

안녕하십니까?

저희 가톨릭 센터는 1970년 10월 31일 개관을 본지 어언간 4년반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저희 센터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교회와 사회가 서로 대화를 나누며, 바람직한 복지문화사회를 이룩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근본정신」을 구현(具現)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하여, 저희 가톨릭 센터의 설립자이신 주교님께서 용단을 내리셨습니다. 「즉」 73년 5월 1일 「위의 근본정신에 동조(同調)하는 사람들을, 신앙과 성별 및 직업에 대한 차별없이 가톨릭 센터의 회원으로 규합(糾合)하여, 그들이 보다 능률적이고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모이고, 대화하며, 활동하는 중심지(Center)가 되도록」 하는 가톨릭 센터의 정관(定款)을 정했던 것입니다.

더더욱, 1973년 9월부터 회원 모집을 시작한지 6개월만에 (지난 3월 16일까지) 164명의 회원들이 각계 각층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가입한 회원들에 대한 직업, 성별, 신앙, 연령별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직업별**
일반시민(사원, 사업인, 상인등 각종 근로자)-58명
학생(주로 남녀 대학생)-37명
교사(초, 중, 고등학교 교사, 교감, 교장)-31명
성직자(신부, 목사, 수녀)-30명
교수, 의사, 언론인-8명
- ② **성별(性別)**
남자 회원-117명 여자 회원-47명
- ③ **신앙별**
천주교 신자-124명 개신교 신자-11명
기타(무종교)-29명
- ④ **연령별**
18세~29세 : 70명, 30세~39세 : 49명,
40세~49세 : 30명, 50세~59세 : 13명
60세~69세 : 2명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및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정초 묵상회(년 1회 : 2박3일코스)
- ② 농촌세미나(년1-3회 : 2박3일 내지 1박2일코스)
- ③ 시민 상담실(매일 일요일 제외) 밤 8~9시 : 분야별로 영광섭의사, 안지은 선생, 조해형 교장, 김현수 교수, 박진량 신부 담당하여 실시
- ④ 말씀의 광장 (FORUM VERBUM) -월 1회 : 매월 셋째주 월요일 밤
- ⑤ 가톨릭 센터 부인회(월 1회)
- ⑥ 가톨릭 센터 이삭회(매주 일요일 오후 3시)
- ⑦ 가톨릭 센터 메아리 합창단(매주 월요일밤 7시30분)
- ⑧ 가톨릭 센터 셋별 프레시디움(매주 목요일 밤 6시)
- ⑨ 목요일 밤에(믿는 남녀 젊은이들의 대화:매주 목요일 밤 8시)
- ⑩ 금요일에 만남시다(레크레이션:매주 금요일밤8시)
- ⑪ 영어문화교실(매주 5회, 월~금요일 실시)
- ⑫ 독어문화교실(매주 4회 실시)
- ⑬ 일어 문화교실(매주 3회 실시)
- ⑭ 회원 성직자 애찬회(년 2회 실시)

머지않아 시작할 프로그램 및 활동

- ① 성경클럽(4월2일부터 매주 화요일 : 박창신 신부 지도(희망자 모집중))
- ② 결혼강좌(4월15~19일 제1회 시작 : 희망자 신청 받고 있음)
- ③ 웰레 묵상회(제1회 : 3월 26일 밤 8시)
- ④ 라틴어 문화교실(의대생들을 위하여 : 박진량 신부 지도 : 일시미정)
- ⑤ 시민의 광장(FORUM CIVILE)<구상중임>
- ⑥ 공의회 연구회(추진중임)
- ⑦ 회원 테니스대회(년 2회 실시예정 : 5월중에 제1회 실시함)

⑧ 회원 등산대회(년 2회 실시예정 : 5월중에 제1회 실시함)

- ⑨ 부부클럽(구상중임)
- ⑩ 인간개발 수련회 : 5월과 9월에 실시예정)
- ⑪ 회원대회(5~6월중에 개최할 예정임)

위와 같은 프로그램과 활동을 보다 능률적이고 알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평가를 받기 위하여, 저희 가톨릭 센터는 다음과 같이 12명의 지도위원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 (가나다순) 김봉호 박사(성모병원장)
- 김종택 신부(부주교, 덕진성당 주임신부)
- 김현수 교수(전주교대 교수)
- 박문근 목사(기독교대학생 지도목사)
- 박승애 수녀(성체회 수녀원 총장)
- 법석규 신부(전동성당 주임신부)
- 안부진 신부(중앙성당 주임신부)
- 이동열 선생(전부신문 주필)
- 장명수 교수(전부공대 교수)
- 정선숙 선생(여학생관 사감)
- 조성호 교감(해성중 교감, 사목협의회장)
- 지정환 신부(신용조합 지도신부)

이상과 같은 지도위원들이 지난 3월9일 제1회 지도위원회를 개최하고 3시간 동안 격의없는 의견교환과 건설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간주려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회원은 회원통신 제4호를 참조하십시오)

- ① 대외적인 선전이 너무 부족하다.
- ② 가톨릭 센터는 신자가 아니면 들어오기 힘든 폐쇄성이 있다.
- ③ 프로그램들이 동(動)적이 못되고, 정(靜)적이다. 도법 사회성이 적다. 뿐만 아니라 굵지하지 못하고 너무 잡다하다.

④ 국내 활동 뿐아니라, 육외 활동도 있어야 할 것이며 센터와 사회를 더욱 밀착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사회단체와 연결시키는 활동이 아쉽다.

⑤ 지금하고 있는 활동 외에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 더 창안했으면 한다.

⑥ 가톨릭 센터가 천주교 신자들만의 것이 아니고, 시민의 것이라는 인상이 더 많이 들도록 했으면 좋겠다

⑦ 가톨릭 센터의 프로그램들을 그 성격별로 구분해 볼 때,

- 1. 문화, 교양 및 오락같은 프로그램
- 2.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프로그램
- 3. 인간성 회복 내지 인간 제 계발에 관한프로그램
- 4. 교회세신 및 신자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너무나 그과 근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⑧ 「시민 상담실」은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이니 대외적으로 선전함이 좋겠다. 그러나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 저희 가톨릭 센터에는 다음과 같이 9명의 간사위원(앞으로「실행위원」이라고 부르기로 했음)들이 있어 각기 맡은 프로그램 및 활동을 보다 더 알차고 보람되게 진행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상갑 선생, 허옥순 여사, 이영희씨, 유병목씨, 이일규씨, 심규리씨, 김태진씨, 유길중씨 등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 ☆ ☆

존경하는 신자 여러분께, 저희 「가톨릭 센터」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순정」이 책임자 여러분의 후의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한마디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 ☆

격변하는 사회현실을 직시하고, 현대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고자 천주교에서 모처럼 시작한 저희 가톨릭 센터가 명실공히 말은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교우 형제자매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면에 계속>

양 지 쪽

「탁 상 공 론」

김 길 수



연기가 자욱한 다방에 들어설 때 마다 많은 사람들이 장사전을 이루어 「고급장터」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언제부터 사람들이 이 고급장터를 이용했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분명히 우리네 사랑방이 서구화되어 만들어진 일종의 대화의 광장임에 틀림없다. 여기엔 사업상 혹은 교제상 필요한 테이블이 놓여져 있다. 가옥구조 및 생활 조건이 풍부하지 못한 우리네 살림에서 다방은 중요한 생활수품의 가치를 갖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방이 전적으로 건설적인 대화와 생산적인 창의성을 발휘하는 장소로서 보다는 무위도식자들의 서식처로 탁상공론을 전개하는 장소라면 백해무익한 언어의 유희에 불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탁상공론은 다방에서 뿐 아니라 많은 회합장소에서도 발견된다. ○ ○모임, ○○회합의 이론전개는 천하일품임에도 그 결과는 역시 탁상공론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생각들면 환멸과 증오까지 느껴진다.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었기 때문이다. 실천없는 이론은 환상의 꿈인 동시에 괴변에 불과하다.

탁상공론의 역사는 소크라테스 시대의 소피스트(괴변론자)에서 유래된다. 당치도 않는 이론을 합리화 시키려했던 자들이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이, 사두세이들도 율법 그 자체에 대한 갑론을박의 공론가들이었다. 실천 불가능한 선거공약(公約)을 내세우는 정치가들에게서도 탁상공론의 공약(空約)을 느낀다. 그러나 뉘니뉘니 해도 공산주의자들의 탁상공론만큼 광적인 것은 없다. 판문점에서 일어나는 탁상공론의 생트집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한편 교회는 어떤가? 하느님의 백성이 모여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그리스찬 공동체가 아닌 탁상공론의 신자들이 모인 한갓 물리적인 집단에 불과한 게 아닌지? 그리스도는 최후만찬의 식탁에서 일치의 기구로 사랑의 유언을 남기고 골방 골고타로 향했다. 마치 자기의 이야기가 탁상공론이 아님을 증명이나 하듯이, 그분의 생애는 동네에서, 바닷가에서 실천의 설교로 행동하는 믿음의 생활이었지 회당과 성전에서 이론과 공론의 설교로 진리를 설파한 공명불의 생애는 결코 아니었다. 사순절을 맞아 신앙과 교회에 탁상공론식 참여를 하지 않았는지 반성할 때가 될 것 같다.

<가톨릭시보 기자>

요십이 (36) 김병오 79.3.26

우리아빠는 분식센터 주인이다. 우리아빠는 가정복센터 사장이다.

우리엄마는 영양센터 회장이다. 시시하다.

요십이 너의 아빠는? 우리아빠는 호텔, 다방 회의실, 식당을 겸한 가톨릭센터 관장이다.

언제부터 가톨릭 센터 관장이 됐니? 어제 밤꿈에.

(2면에서 계속)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회원 가입의 절차는 ①가입 신청서(소정양식) ②증명 사진 2장 ③입회비 500원을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마다 1'000원씩 회비를 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회원은 가톨릭 센터의 모든 활동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본 센터의 모든 직책에 선임될 자격을 가

지며, 회원 정기총회(혹은 회원대회에 참석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아울러, 관리 기획진의 배려에 따라, 본 센터의 정기적인 모든 프로그램에 참석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센터 관장
박 진량 신부 드림.

* 이 주간의 성경 *

25(월) 성모 영보 대축일	독서(이 사 7: 10-14, 8, 10)	복음(요 10: 1-10, 성서 P. 418)	28(목) 복음(요 2: 1a, 12-22)	한 5: 17-30, 성서 P. 213)
복음(요 10: 1-10, 성서 P. 418)	독서(루 가 1: 26-38, 성서 P. 121)	29(금) 독서(제 47: 1-9, 12)	복음(요 11: 18-20)	한 5: 31-47, 성서 P. 214)
26(화) 독서(에 제 47: 1-9, 12)	복음(요 5: 1-3a, 5-16, 성서 P. 212)	30(토) 독서(에 레 11: 18-20)	복음(요 7: 40-58, 성서 P. 223)	한 7: 1-2, 10: 25-30, 성서 P. 220)
27(수) 독서(이 사 49: 8-15)				

◎ 닭 · 염소 · 야생동물 일체 ◎

화 랑 상 회

<교우들에 특별 봉사>

최 병 수(안당)

남부시장 닭전

전화 ② 6C91(교환) 108

제일 비싼 독일의 3년 연속 V.A. 번식 성적 1위인 판토호의 직자

렉스 V 래토프



仔犬분양 (임한전 애견) 문의처: 전화 ②7692(진북동 어은골)

조흥(사자표)페인트 대리점 (집질 전문)

대 동 지 를 상 사 } 고급벽지, 비닐장판, 하드보드, 각종페인트

● 동문 사거리 전화 ② 5986 임 정 원 (도민교)

제4지구 6개 본당 소식

- 1. 성프란치스코 재속 전주 방지거 형제회 (3월 30일 오전 10시 : 심의회. 오후 1시 : 수련자 교육. 오후 2시반 : 월례회)
- 2. L.M 아치에스 행사 (3월 31일 전동 : 오후 1시 30분) 전동, 복자, 시학의 본당인 전단원 및 협조단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사열식에 참여합니다.
- 3. 성년 행사 (매주 금요일 : 오후 3시-5시) 덕진 본당 김 종택 부 주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 4. 전주 교구 가톨릭 중·고등학생연합회 정기총회 (3월 31일 오후 3시 : 가톨릭 센터 강당) 각 성당 회장 및 임원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2. 전주 노송동 성당 신축 기공식 (3월 19일) 도시 계획에 의하여 새로 성당을 짓지 아니하면 안될 노송동 성당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주교님을 비롯하여 신부님들, 수도자들, 시내 각 본당 교우들의 뜨거운 성원아래 머릿뿔을 올린 이 사업이 금년 중으로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며 힘 닿는대로 도와 줍시다.

[소]

[식]

(중앙)

전화 ②2651 주임 신부 안복진
 ③3874 보좌 신부 박창진
 사도 회장 이복석

- 1. 중 고등부 학생회장 (오늘 공식 미사후) 중 고등학생회 각 학교 회장은 본당 신부님 사무실에 집합 할 것.
 - 2. 대학 신입생 환영회 (30<토> 오후 3시 30분) 보좌 신부님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 3. 볼 판공 및 4지구 합동성년 행사 (4월 5일 오후 7시반) 고백 성사와 미사가 작년 판공때와 같이 합동으로 하는데 성사표는 구역회장님께 받으십시오. ※ 용품, 간증공소는 4월 1일 오전 9시부터 공소에서.
 - 4. 교무금 납부 (3월 15일 현재 25%) 볼 판공까지 3분의 2를 납부하여 교회유지와 하느님 사업에 협조합니다.
 - 5. 사제 양성 후원기금 (매월 전용조합에 붙임)
 - 6. 전자 오르겐 구입 특별헌금 (특별활인실가 120만원) 하느님 찬양 성가에 적극 참여하시어 주교좌 성당을 더욱 빛내기 위해 헌금 바랍니다.
- 지난 주일 봉헌금 44,133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 4. 중 고등 학생 정기총회 (오늘 공식 미사후) 학생들은 빠짐없이 참석요망
 - 5. 아동 교리반 (부모님들의 관심 요망) 교리 : <일> 오후 2시 반. 미사 : 오후 4시
- 지난 주일 봉헌금 6,655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⑦7032 주임 신부 함승천
 사도 회장 조해철

- 1. 노송 성당 신축 기공식 (3월 19일) 주교님을 비롯하여 신부님, 수녀님, 각 본당 사도 회장님, 교우들께 적극 협조해 주심에 뜨거운 감사로 드립니다.
- 월조해 주신분, 감사합니다.
- 만 2천 5백원 : 다리공소, 만원 : 중앙성당 사도회, 중앙 사도회장, 박중용, 김성록, 8천원 : 신교리 공소, 5천 2백원 : 왕정 공소, 5천원 : 혜성학교장이 상용, 성심학교장 김규승, 스타사장 박인철, 4천 5백원 : 이금옥, 4천 2백원 : 신원 공소, 3천 5백원 : 박삼순, 3천원 : 이경화, 노영희, 2천 5백원 : 나복수, 2천원 : 조마리아, 김 메레사, 강영주, 송을병, 이기환, 정금순, 전창환, 박양금, 천 5백원 : 김인근, 천 2백원 : 엔젤셀 일동, 천원 : 정안나, 조성호, 이원희, 강백순, 조성용, 최동배, 김순애, 정원섭, 정안나, 박태준, 김재완, 백마리아, 오길동, 무명씨, 5백원 : 무명씨, 김순옥, 최복례, 정용녀, 이옥진, 3백원 : 이덕남, 약숙금, 백미 1가마 : 박옥주, 3천원 : 유 테레사 □ 지난 주일 신축 기금 142,900원
- 19일 기공식 헌금 20,752원 누계 1,010,4,02원
 지난 주일 봉헌금 13,610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 1. 볼 판공일정 25(월) : 마을리, 28(목) : 외어두리, 석장리 29(금) : 내어두리, 30(토) : 신리
 - 2. 교리 교사회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 3. 성경 연구 동지회 (매주 오후 3시) 성경을 지참하시고 많은 참석 바랍니다.
 - 4. 성년 순례 성당 참배 (자모회 전원) 외에는 많은 참석 바랍니다.
 - 5. 신용조합 이사회 (25(월) 저녁 8시)
 - 6. 신용조합 월례회 (27(수) 저녁 8시)
- 지난 주일 봉헌금 11,013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③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김종환

- 1. 신용조합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조합원의 전원 참석 바라며 (조합원에 한해서) 참석 하신 분에게는 복권 1매씩 드립니다.
- 2. 판공 일정 본당 : 4월 2일 26(화) : 전당리, 27(수) : 미산리, 28일(목) : 내동리 27(금) : 동산촌
- 3. 애령회 기금 조성 섬미운동 (지난주 2회) 교우 여러분의 적극 협조 바랍니다. 누계 3회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벌석규
 사도 회장 송재진

- 1. 예비자 교리 (매주, 공식, 저녁, 수요일 저녁사후)
- 2. 주일 학교 일일교양 (엄익도(시몬)선생님)
- 3. 부녀부 소식 (매주 토요일 저녁 어머니 미사)
- 4. 미사 시간 변경 (31일부터) 주일 첫미사 : 오전 5시반, 둘째 미사 : 9시 공식미사 : 10시, 저녁미사 : 7시반 평일 월, 화, 목, 금 : 오전 5시 반 수, 토 : 저녁 7시반
- 5. 대건 신용 조합 임시 총회 (4월 4일 오후 8시) □ 부녀부 성미 2회 헌금 21,265원
 지난 주일 봉헌금 40,111원, 감사합니다.
 각자 정성껏 성의를 포함합니다.